

프랑스 공공집합주택 분석을 통한 주거의 공유성에 관한 연구

—마르세이유 유니떼다비따시옹(Unité d’Habitation)대상으로—

최호순

계명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A Study on the Residential Community through Social Collective housing in France -Focused on Unité d’Habitation in Marseille-

Ho-Soon Choi

Department of Architecture, College of Engineering, Keimyu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오늘날 우리사회의 고령화, 핵가족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주목하고,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주거문화 계획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대상은 건축가 르코르뷔제가 설계한 프랑스 공공집합주택인 마르세이유 도시에 위치한 유니떼다비따시옹 이다. 프랑스 국가가 오랜 역사와 문화적 성장을 통하여 구축한 중요한 국가사상들 중에서 ‘주거’라는 주제는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이 아닌 시민복지의 근간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1950년대 초반에 건설된 유니떼다비따시옹 공공집합주택은 국가가 추구하는 시민복지의 정신을 여러 다양한 계층의 세대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주거의 공유성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본 연구의 주제인 주거의 공유성에 관한 연구는 향후 우리사회의 세분화되는 다양한 세대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문화 제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 주제어 : 주거의 공유성, 공유집합주택, 프랑스 공공집합주택, 르코르뷔제, 유니떼다비따시옹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social problems such as aging and nuclear family in our society, and aims at carrying out basic research for the new residential culture plan corresponding to this social phenomenons.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Unité d’Habitation in Marseille, a French public collective housing designed by architect Le Corbusier. Among the important national ideologies that the French government has built through the long history and cultural growth, the theme of ‘Residence’ is not only a residence but a foundation of citizen welfare. In this context, the value of Unité d’Habitation as common collective housing is very high because it presents the spirit of citizen welfare pursued by the country as residential community where various generations of households can coexist together. It is expected that the study on residential community, which is the subject of this study, will positively influence the presentation of a new residential culture for various subdivided generations of our society.

• Key Words : Residential Community, Common Collective Housing, Social Collective Housing in France, Le Corbusier, Unité d’Habita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우리사회가 앞으로 대면할 중요한 사회적 현상에 대응하는 새로운 주거문화 계획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을 목표로 한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사회적 현상이라 함은 고령화와 핵가족화에 의한 가족 구성원의 다양화 현상이며, 기존의 부모와 자식으로 표현되는 ‘가족’의 개념은 오늘날 세분화되고 다양화되어, 이와 같은 가족분화현상 즉, 분화되고 다양한 세대들에 대응하는 주거문화 개발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프랑스 공공집합주택의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주거문화 계획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프랑스의 공공집합주택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프랑스 국가가 오랜 역사와 문화적 성장을 통하여 구축한 가장 중요한 국가사상들 중에서 ‘주거’라는 주제는 시민복지의 근간이며,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의 공공집합주택은 일반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접근가능하고 양질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시대의 최적의 공공주거형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스위스태생으로 프랑스에서 일생 대부분을 건축가로 활동한 르코르뷔제(Le Corbusier)가 1952년 완공한 프랑스의 마르세이유(Marseille) 도시의 유니떼다비따시옹(Unité d’Habitation, 1949-1952) 집합주택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유니떼다비따시옹은 르코르뷔제의 작품 중 처음으로, 건축가 생전인 1964년에 프랑스 문화재로 지정되었고[1], 2016년에는 대표적인 모더니즘 건축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2]. 본 건축물을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첫째,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재건의 일환으로 주거문제를 시민복지차원에서 해결하고자 계획된 국가주도에 의해 건설된 공공집합주택의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이고 둘째, 이러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르코르뷔제 건축가가 제시한 공공집합주택의 ‘공유성’은 사회학적 그리고 건축학적으로 그 연구의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특히 건축가 르코르뷔제에게 주거는 사회에 대한 혁신적인 관념이었고 새로운 사회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상으로 보았다[3].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개념인 공유성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사전적 의미인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유’의 의미에서부터 우리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 및 공생관계들 사이에서 서로간의 삶을 소통하는

‘코뮌(commune)’의 사회학적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다 [4]. 또한 건축분야에서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에 형성되는 ‘배개공간’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5].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공유성(community)’은 ‘공공성(public)’과는 다르다. 본 연구가 다루는 주거의 공유성은 주거공간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공공성(public)’의 의미인 공공성이 가진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 혹은 보편적으로 관련된 의미[6]가 아니라 여러 다른 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의미의 사회 통합적 개념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체적인 연구대상인 프랑스의 유니떼다비따시옹 공공집합주택의 공유성을 고찰하여 오늘날 우리나라 주거계획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나 가족 구성원의 수에 상관없이 여러 세대가 공공집합주택에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의 조화’를 제안하는 기초연구를 수행함에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대응하는 주거문화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학적 그리고 주거건축계획의 건축학적인 연구가 병행되는 융·복합적 연구의 가치가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건축가 르코르뷔제는 단순히 건축가로서 건축물을 설계함에서 벗어나 당시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공공 집합건축물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르코르뷔제가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집합건축물의 공유성을 제안한 것에 주목하고 이러한 건축가의 의도에 의해 완공된 그의 최초이자 마지막 공공집합건축물인 유니떼다비따시옹을 본 연구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당시 르코르뷔제가 공공집합주택을 통하여 자신의 주거 공유성 이론을 확립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주거문화에 관한 사회적 현상에 주목하고, 특히 그 당시 프랑스 공공집합주택 정책발전 과정에 관한 문헌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후 연구대상인 유니떼다비따시옹 공공집합주택에 관한 분석은 르코르뷔제가 제안한 주거의 공유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축물에 적용되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유니떼다비따시옹 공공집합주택의 주거 유형 및 특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헌고찰 및 건축가의 스케치, 드로잉 분석이 이루어 졌다. 이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 표현된 모든 도면 및 표는 본인이 직접 수행한 스케치 및 다이어그램으로 제시하였다.

2. 프랑스 공공집합주택 정책발전 과정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국가들은 15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농촌에서 도시로의 근대화(Modernity)가 시작되었고 도시로 몰려드는 많은 인구로 인해 도심지 내의 '주거'라는 주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7]. 특히 프랑스 국가가 주거의 문제를 사회 복지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한 계기는 1832년과 1849년에 걸친 콜레라 전염병에 의해 많은 시민의 희생 때문이었다. 당시 도시의 비위생적인 문제는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적 차원의 대상이기 이전에 위생을 향상시킨 양질의 주거공급을 통하여 시민들의 노동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가 강했다. 그 결과 주거라는 사회적 문제를 프랑스 국가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했으며, 오랜 주거문화의 역사를 통하여 주거문제를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에서 다루는 것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복지의 대상으로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오늘날 여러 다른 나라들보다도 프랑스에서 시민들을 위한 발전된 공공집합주택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콜레라 전염병으로 많은 수의 희생자가 발생된 이후 1850년 "비위생주거 정비법"이 제정되었고 이는 주거에 관한 공공이 개입한 최초의 입법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본 법안의 내용은 국가가 비위생주거를 감시하는 위생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었으나, 법안이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이었기에 법이 가진 큰 효력은 없었던 한계가 있다. 1889년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 기간 동안 저렴한 주택 개념인 '사회주택(HBM, habitations à bon marché)'이 각국의 기업에 의해 전시되었고, 바로 다음해 2월에는 프랑스 최초의 사회주택 공급회사가 설립되었다[8]. 이처럼 프랑스의 '사회주택'은 19세기 중반 도시 위생문제의 해결과 저소득 계층을 위한 주거에서 태동하여 현재까지 많은 변화와 시행착오를 거치며 진화하고 있는 일종의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한다[9].

1894년에는 사회주택을 건설하는 회사가 공적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독려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시그프리트(Siegfried)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재까지의 법들은 민간에 의해 진행되는 주거정책에 해당되어 일반시민들의 주거문제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어 1906년 '스트로스(Strauss)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각 도에 사회주택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가 사회주택을 건설하는 민간회사에 토지제공이나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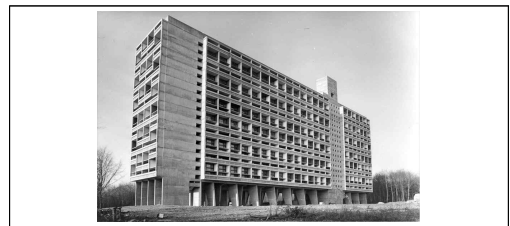
금지권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1913년에는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최초의 공공기관(OPHBM, Office Public d'HBM)이 설립되어, 이전의 민간부문이 공급했던 임대형 사회주택을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하게 되었다[8].

1918년 1차 세계대전 종료이후, 도시재건과 부족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고, 1928년 '루세르(Loucheur)법'이 제정되어 저소득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공공집합주택을 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프랑스 전 지역이 피해를 보았고, 국가에 의한 주거공급정책 대상은 저소득의 특정계층에서 중산층까지 포함하도록 범위가 확대되었다. 1950년 저렴한 주택 의미인 '사회주택(HBM, habitations à bon marché)' 명칭은 '공공임대주택(HLM, habitations à loyer modéré)'으로 바뀌어 국가가 공급하는 공공집합주택이 단순히 극빈자들을 위한 낮은 수준의 주거공간이 아니라 중산층까지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주거공간을 의미하게 되었다[9].

3. 마르세이유 유니떼다비따시옹 주거공간분석

3.1 평면 분석

유니떼다비따시옹은 프랑스 마르세이유 도시에 지어진 국가에 의해 건설된 공공집합주택으로 1949년에 공사가 시작되어 1952년 완공되었다.



[Fig. 1] Unité d'habitation in Marseille[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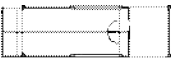


2장에서 언급한 1950년 국가에 의해 주도적으로 프랑스 공공집합주거가 중산층까지 확대 공급되도록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인물은 당시 국가 재건 및 도시계획 장관이었던 에젠 클라우디우스 프티(Eugène Claudius-Petit)였다. 그는 르코르뷔제의 건축사상을 지지하여 마르세이유 유니떼다비따시옹이 공공집합주택으로 완공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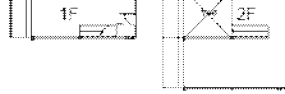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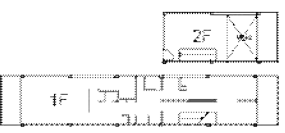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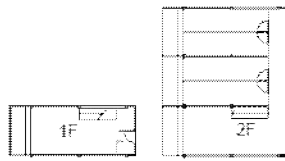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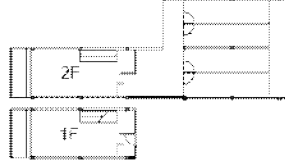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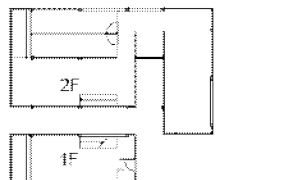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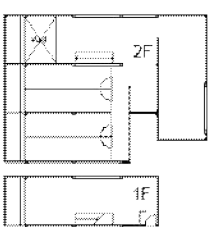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고, 1952년 10월 14일 본 건물의 완공식 행사가 진행되었을 때, 공공집합주택이라는 성격의 건축물에도 불구하고 건축가 르꼬르뷔제와 함께 행사에 참여하였다[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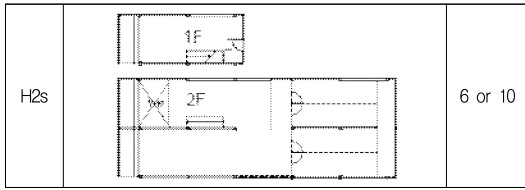
마르세이유 도시에 건설된 공공집합주택인 유니페다비따시옹은 1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350세대로 초기 계획되었고, 완공 당시 세대 구성은 23가지 타입의 337세대로 구성되었다[10]. 여기서의 주거 ‘타입’은 르꼬르뷔제가 집합주택을 설계할 때 유사한 형식으로 지어지는 이전의 여러 건축물들의 특징을 연구하여 건본을 만들고 명확한 시스템으로서 정립하여 나온 형태를 의미한다[12]. 이후 본 논문에서는 르꼬르뷔제가 정의한 주거 ‘타입’을 주거 ‘유형’으로 해석하여 작성한다.

주차공간을 위한 일층부분의 빈 공간을 제외하고 총 17층 규모로 건물의 길이는 165m, 깊이는 24m 그리고 높이가 56m의 장방형 건축물 내부에 르꼬르뷔제는 자신의 건축적 사상인 집합주거의 공유성을 구축하기 위하여 총 23가지의 서로 다른 주거공간들을 배치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들은 입주자 구성원들의 현황 분석에 따른 결과이며, 유니페다비따시옹은 독신자와 같은 1인용 주거부터 8명의 자녀를 둔 부부까지 모두 6단계로 가족그룹을 수용하도록 계획되어 그 결과, 주거기능을 갖춘 스튜디오, 호텔 등 일부 서비스 시설을 제외한 총 14가지의 서로 다른 전용주거 유형이 있다[13]. 14가지의 서로 다른 주거 유형들은 우선 A부터 H의 형태로 대분류 하였고, 이후 주거의 하층에서 상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s(superior), 상층에서 하층으로 내려가는 것은 i(inferior) 그리고 주거의 바닥부분이 오픈되지 않은 i(inferior) 유형은 spi로 소분류하였다. 이후 각각의 유형에 따른 가족구성원수를 정리한 사항은 아래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Unit Types[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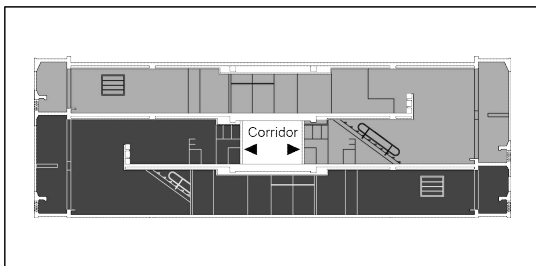
Type	Plan	Family number
A		1
B		1 or 2
Cs		3

Ci		3
Cspi		3
E1s		4 or 6
E1i		4 or 6
E2s		4 or 6
E2i		4 or 6
G1s		6 or 10
G2s		6 or 10
G3s		6 or 10
H1s		6 or 10



3.2 단면 분석

유니떼다비따시옹은 1층 부분의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총 17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7층과 8층은 상점들 그리고 업무시설 같은 공용시설이 배치되어 있어 주거공간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3.1장의 평면유형에서 나타나듯 1인 또는 2인을 위한 단층의 주거형태보다 계단을 이용한 2개층으로 조합된 복층형의 주거 형태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개층으로 조합된 복층형 주거는 [Fig. 2]의 단면도에서 볼 수 있듯 중앙의 복도를 중심으로 양 옆으로 배치되어 있다. 중앙에 위치한 복도의 장점은 주 진입 방향에 따라 주거의 상단으로 또는 하단부분으로 진입이 가능한 입체적인 동선계획이 가능하고 어떤 주거공간이든 한쪽 면은 남쪽에 배치되어 각 주거공간으로의 충분한 햇빛을 끌어올 수 있다.



[Fig. 2] System of 2 housing units_Duplex type

르코르뷔제는 14가지의 서로 다른 유형의 평면을 개발하여 수평적으로 공간의 다양성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1층부터 17층의 각층에 14가지의 평면들을 배치하여 수직적으로도 주거공간의 다양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르코르뷔제가 제시한 다양성은 개인의 삶과 공동체적 삶의 조화, 즉, 개별성과 집합성의 공존을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15]. 각 층에 위치한 평면유형을 정리하면 아래의 <Table 2>와 같다.

<Table 2> Unit Types[13]

Floor	Units Types
1	E2i, Ci, Cspi, E1i
2	E2s, E2i, G1s, G2s, G3s, Ci, Cspi, E1s, E1i
3	E2s, G1s, G2s, G3s, E1s
4	E2i, Ci, Cspi, E1i
5	E2s, E2i, G2s, H1s, Ci, Cspi, E1s, E1i
6	E2s, G2s, H1s, E1s
7	A, B, Cspi
8	B, Cspi
9	E2i, Ci, Cspi, E1i
10	E2s, E2i, G1s, G2s, G3s, Ci, Cspi, E1s, E1i
11	E2s, G1s, G2s, G3s, E1s
12	E2i, Ci, Cspi, E1i
13	E2s, E2i, G2s, H1s, Ci, Cspi, E1s, E1i
14	E2s, G2s, H1s, E1s
15	E2i, Ci, Cspi, E1i
16	E2s, E2i, G1s, G2s, H2s, Cs, Ci, Cspi, E1s, E1i
17	Cs, E1s

<Table 2>에서 나타나듯 1층부터 17층까지 모든 층에서 서로 다른 평면들의 배치되어 있다. 이는 유니떼다비따시옹 집합주택의 각 층마다 여러 다른 구성원을 가진 주거세대들이 함께 공존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장 다양한 주거평면 유형들이 조합된 16층인 경우 한 자녀를 둔 부부를 위한 3가지 유형의 주거 타입 (Cs, Ci, Cspi)과 2~4명의 자녀를 둔 부부를 위한 4가지 유형 (E1s, E1i, E2s, E2i) 그리고 4~8명의 자녀를 둔 부부를 위한 3가지 유형 (G1s, G2s, H2s)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모든 층마다 가족구성원이 가장 적은 독신자부터 10명의 구성원을 가진 대가족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집합주택이라는 건축공간속에서 가족 구성원의 수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다른 여러 세대들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적 통합개념의 주거의 공유성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결론

본 연구는 1952년 프랑스 마르세이유 도시에 위치한 유니떼다비따시옹 집합주택의 공간분석을 통하여 공공 집합주택의 공유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공간에 대한 인간행태와 현 시대의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학적 분야 그리고 건축계획의 건축학

을 포함하는 융·복합적 연구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본문에서 수행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에서의 ‘주거’라는 주제는 15세기부터 진행된 국가 복지차원의 사상이다. 이는 19세기 중반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정책들이 증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된 주거정책의 덕택으로 오늘날 프랑스국가에서는 양질의 공공집합주택들이 시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건축가 르코르뷔제에 의해 건설된 유니테다비타시옹 공공집합주택의 주거공간에서 건축가 자신이 개발한 주거의 공유성을 연구하였다. 우선 르코르뷔제는 14개의 서로 다른 유형의 주거 평면들을 독신자부터 8명의 자녀를 둔 부부를 위한 총 6단계의 입주자들에 맞게 개발하여 공간의 수평적인 측면에서 주거의 다양성을 제시하였고, 또한 1층부터 17층까지 각 층마다 여러 형태의 주거유형 들을 배치하여 단일 집합주택에 수직적인 주거의 다양성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르코르뷔제는 집약된 단일 집합주택 공간에 수평적 그리고 수직적인 주거의 공유성을 제시하여 입주민들의 경제적 능력과 그들의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주거 선택권을 부여하였고, 이러한 주거의 공유성은 다양한 세대가 한 집합주택 건물 안에 공존하는 ‘공동체의 조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본 연구 주제인 주거의 공유성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상인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 계획에 매우 필요하다 판단되며, 현재 한국형 공공집합주택이 가진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리라 사료된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NRF-2017S1A5A8020005)

REFERENCES

- [1] G. L. Lee, “A Study of social working concept shown in Le Corbusier’s collective housings - Based on the composition factors of the Unité d’Habitation de Marseille-”, J.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Vol. 16, No. 6, pp. 31, 2014.
- [2] <http://whc.unesco.org/en/list/1321/>
- [3] J. S. Jung, A Study on Le Corbusier’s Urbanism:Ideology and Habitation. J.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5, No. 3, pp. 40, 1989.
- [4] H. W. Jung, The Study on the Sharing System of Interpretation Elements of Small Multi-family House. Hongik University, M. Arch. thesis, 2017.
- [5] J. H. Han, La demande social et la prescription architecturale pour l’espace collectif des logements, J. of the Association Culturelle France Coreenne, Vol. 27, pp. 432, 2013.
- [6] H. C. Lee,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Design Factors Affecting Public Use of Indoor Open Spaces at Mixte-use Buildings. Yonsei University, Ph.D. thesis, 2009.
- [7] F. Braudel, Civilisation matérielle, économie et capitalisme, XVe–XVIIIe siècle. 1 - Les Structures du quotidien, Armand Colin, 1979.
- [8] Y. T. Kim, Lessons from 100 years of French Housing Welfare Policy, Samsung Economy Institute, pp. 28-30, 2008.
- [9] G. L. Lee, “Le Corbusier’s Influence on Social Housing Project In France”, J.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Vol. 13, No. 3, pp. 57-59, 2011.
- [10] Le Corbusier, Oeuvre Complète, Vol. 5, MGHBOOKS, pp. 196, 177-179, 2012.
- [11] A. Tzonis, Le Corbusier - Poétique, Machines et Symboles-, HAZAN, pp. 148, 2001.
- [12] G. L. Lee, “A Study on the Compositional Characteristics of Housing types of Le Corbusier’s Bloc Housing”, J.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Vol. 17, No. 6, pp. 60-61, 2015.
- [13] J. W. Chung, E. H. Kim, “A Study on the Method of the Spatial Configuration of the Marseilles Unité d’Habitation”, J.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Vol. 23, No. 6, pp. 126-128, 2007.

- [14] R. M. Bisch, Le Corbusier-La cite radieuse de Marseille, Atelier du Patrimoine, pp. 24-36, 1992.
- [15] E. J. Park, S. K. Sohn, "A Research on thd Idea of Public and Private Spaces and the Spatial Composition of Le Corbusier's Multi-Family Housing Projects", J. of the Korea Housing Association, Vol. 26, No. 5, pp. 159, 2015.

저자소개

최 호 순(Ho-Soon Choi)

[정회원]



- 2004년 2월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사)
- 2007년 9월 : 파리 라빌랏트 건축학교 (건축학석사)
- 2007년 9월 : 프랑스 공인건축사 (HMONP)

• 2013년 3월 ~ 현재 : 계명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조교수

<관심분야> : 건축계획 및 설계, 도시설계, 교육시설, 주거설계